

[보도자료] 쿠팡, 'F/W침구샵' 전문관 오픈

2019. 9. 5.



- 가을 겨울철 겨냥한 침구 및 리빙 상품 115만 여종 12개의 카테고리로 선배
- 'BEST겨울이불', 'BEST 토퍼'로 보온성 높이는 상품 추천

2019. 9. 5. 서울 – 쿠팡은 최근 서늘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F/W침구샵' 전문관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문관에서는 115만 여종의 상품들을 이불, 침구세트, 난방텐트, 전기요, 카페트/거실화 등 12개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했다. 카테고리 메인 화면을 쇼룸 형태로 구성해 ▲겨울이불▲베개▲토퍼▲러그 ▲암막커튼 ▲협탁 등 자주 찾는 상품들로 꾸몄다.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에 맞춰 보온성이 높은 이불과 토퍼 등을 소개한다. 특히, 가을 겨울에 많이 찾는 '구스/오리털 이불', '양털 이불', '극세사 이불'을 'BEST 겨울이불'로 '극세사 토퍼', '라텍스 토퍼', '메모리폼 토퍼'를 'BEST 토퍼'로 추천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스위즈홈 헬렌 고밀도 차렵이불 베개세트 이불세트'로 쿠팡가 3만5000원대이다. 침대 위에 올려 포근함을 더해주는 '타카타카 울트라파인화이버 더클라우드 밴딩형토퍼'는 4만3000원대, 3중 암막원단으로 빛 차단 효과가 높은 '지나송 모던 암막커튼 특대형2p + 봉'은 7만9000원대이다. '러그마켓 클리프 러그'는 2만8000원대로 준비했다.

윤혜영 쿠팡 시니어 디렉터는 "계절과 트렌드에 맞춘 홈스타일링 니즈가 증가하면서 관련 리빙 상품 및 침구로 전문관을 새 단장했다"며 "앞으로도 시즌별 집 꾸밈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매 시즌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100만 여종이 넘는 상품들을 모아 기획전과 전문관, 테마관을 선보이고 있다. 오프라인 박람회 규모 이상의 다양한 상품을 쉽게 찾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